

스터디 의견

- 스터디 목적 : 해킹 공격의 기술 연구
- 스터디 목표 : 코드게이트 본선 진출 및 향후 지속적인 CTF 출전
- 모임 일정 : 매주 화요일 7시 ~ 10시 토즈
- 모임 방식 : 이론과 실습에 대한 학습을 번갈아가면서 진행.(책 1권 완료->실습 완료 -> 책 1권 완료 -> ...) 이론적 기반이 다져지고 난 후에는 실습만 진행.

1. 이론

1. 책 선정
2. 모임 시간에 책을 낭독하며 모르는 부분 토의
3. 스터디 마무리 15분 전 진행한 내용 구글 Docs에 정리
4. 책 한권이 마무리되면 해당 내용을 활용할 소규모 프로젝트나 CTF 문제 등을 이용한 실습.

※ 낭독을 하는 이유: 각자 읽어서 요약해오는 방식의 경우, 자신이 맡은 부분 외에는 학습의 깊이가 깊지 않고 바쁜 시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알게 공부할 위험이 있어 직장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.

2. 실습

1. CTF Writeup 분석 및 토의.
2. 크고 작은 CTF 출전.
3. 이론에서 익힌 개념을 토대로 간단한 성과형 프로젝트 진행. (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실습이 산으로 가지 않음. 예를 들어 바이너리 분석에 대한 책을 학습 -> strace, ltrace, PEDA 디버거를 이용하여 분석보고서 작성하기)

3. 모임 유지

1. 모임 비용: 주기적 모임을 통하여 모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공개 소프트웨어협회에 커뮤니티 지원을 이용하면 토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. 하지만 신청 및 관리가 필요하여 귀찮을 수 있다.
2. 공유 플랫폼: 네이버 카페는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, 사용하기 편할 것 같음. 그외 의견으로 github 생각보다 괜찮음.

4. 결론

지속적인 기술 연구에 목적을 두고 화요일 7 ~ 10시에 공부합시다. 실력 향상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ctftime.org에서 소규모 대회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향하지 않게 코드게이트 본선 진출을 목표로 마음을 다잡읍시다!

한줄 정리: 주 1회 모여서 책과 실습으로 실력 쌓으며 CTF 수상하자.

추신

각자 확실한 주된 관심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, CVE는 관심없나요? PWN2OWN 이정훈 존경합니다.

끝